

PCT 이용 국제출원 설명회 11월2일 개최

특허청은 한국어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른 변경사항 및 외국 글로벌기업의 PCT를 이용한 해외출원 전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출원 설명회를 11월2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어는 2007년 9월24일 제43회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UN 국제공용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중국어·아랍어)를 제외하고 일본어, 독일어에 이어 3번째로 공식 공개언어로 채택됐다.

국제출원 설명회에서는 특허청의 PCT 국제출원 제도의 최근 동향과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의 의미 및 변경사항에 대한 강의를 통해 한국어 국제 공개어 채택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변경되는 국제출원절차 등을 설명하고, PCT 전문가의 Microsoft의 PCT 출원전략 및 대리인의 관점에서 본 국제공개어로서의 한국어 활용방안에 대한 강연, 미국 글로벌기업의 PCT 출원전략과 한국어 국제공개시 대리인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해외 특허출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화학저널 2007/10/30>